



## 바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대법 “위법”

이  
수  
판  
결

피고인 소환장 못받아 법정 불출석…“2심 재판 다시”

바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한 상태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9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

도 0.108%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북 포항시 남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를 쳐 수리비 379만여원이 들게 하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씩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법원 계시장에 공소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일리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강씨 없이 재판을 진행해 각 징역 10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을 못 받아 1심 선고 후에야 뒤늦게 항소권을 회복받아 항소했던 강씨는 2심 법원 소환장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2심이 강씨의 비관 휴대전화번호를 알았는데도 공시송달 결정 전후에 그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에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상 피고인 휴대전화번호 등이 있는 경우 연락해 보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전남경찰청 특별치안활동 통했다

지난해 동기 비해 5대 범죄 발생 30건 감소

절도는 26건 줄어…음주운전도 36.3%↓

전남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5대 범죄 발생이 30건이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12일간 ‘연

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5대 범죄 발생이 30건이 줄었고 특히 절도는 26건이 감소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엄정한 범집행으로 각종 범죄·사고

에 대응함과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따뜻한 경찰활동도 병행했다.

우선 지역경찰 자원근무 활용, 형사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금융기관, 편의점 등 범죄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범죄예방·신고 요령을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했다.

또 생활주변 폭력·음주운전 및 강·절도 범죄에 엄정 대응했다.

특히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해 연말연시 일평균 대비 사고는 36.3%가 줄었고, 부상자는 55.5%가 감소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역민에게 믿음 주고, 사회적 의자가 보호받는 더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특별치안활동을 통해 안정된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 근처 밭으로 향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바람에 꿈쩍을 못했던 동안, 할머니 집에서 수시간 수돗물 사용량이 ‘0’이라는 문자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2018년 여름, 경북 고령군에 혼자 사는 80대 김모 할머니는 ‘똑똑한’ 수도 계량기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집 근처 밭으로 향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바람에 꿈쩍을 못했던 동안, 할머니 집에서 수시간 수돗물 사용량이 ‘0’이라는 문자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처럼 수돗물 사용량을 원격 검침해 취약계층의 이상 징후에 대응하는 ‘취약계층 위기 알림 서비스’가 2022년까지 전국 161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자원공사는 경북 고령 지역 30가구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지난 2017년 시범 도입했다.

도입 1년 만에 김모 할머니 사건으로 효과를 입증한 공사는 2018년 11월 고령군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고령자 거주 비율이 높은 18개 읍·면 지역체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늘렸으며, 2022년에는 161개 읍·면 지역체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위기 알림 서비스는 홀몸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 가구에 원격 검침 기능을 갖춘 디지털 수도 계량기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면 시작된다.

디지털 수도 계량기는 물 사용량을 1t 단위로 측정하는 기준 기계식과 달리, 전자식이어서 1l 단위의 세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또 원격 센서와 연결돼 있어 공사의 정보수집 서버에 물 사용량 기록을 1시간 단위로 보내게 된다.

공사는 정보분석 장비를 이용해 이 기록을 실시간 모니터링·분석하고, 가구의 물 사용량이 24시간 내내 전혀 없이 유지되는 등 사용 패턴이 급격히 변화하면 이를 위기 징후로 판단한다.

이처럼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관련 정보가 공사의 정보전달용 서버에서 자체 서버로 전해지고, 담당 복지사나 보호자에게 알림 문자가 자동으로 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체계를 통틀어 ‘AMI’(지능형 겸침 인프라)라고 부른다. AMI는 전기나 가스 등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물’과 접목됐을 때 고독사 같은 취약계층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2017년 9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수도는 전기·가스와 달리 평상시 계속해서 쓰는 기초 사용량이 거의 없다. 전기나 가스는 모든 시간대에 걸쳐 적거나마 소모하는 양이 존재하는 반면, 수도는 변화 정도가 현격하다.

수자원공사의 위기 알림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복지 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홀몸노인 고독사를 방지하려면 복지 인력이 발로 뛰지 못하는 시간대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를 스마트 겸침이 도와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기술 겸침과 보안·성 확보를 거쳐 사업 기반이 마련되면 단계적으로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 지역과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1

‘2020 전국 새해 알뜰 마라톤대회’ 힘찬 출발

5일 오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야구장 일원에서 열린 ‘2020 전국 새해 알뜰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추위도 잊은 채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2008년 시작해 올해 13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인 1088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3명 사상’ 모텔 화재 교훈

### 광주소방, 겨울철 안전대책 재검토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모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광주 북구 두암동 모텔 화재와 같은 다수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시 관리 감독강화와 예방 활동 등을 통한 사전 위험요소 단위에 주력할 방침이다.

건물 형태별 대피유도 방법 지도와 안전교육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도 고취시킬 방침이다.

화재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중이용업소의 현황을 조사해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다중이용업소 법령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지도, 소방훈련 실시 등 관리도 강화한다.

시 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차단행위 등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 민족이 있는  
자폐치료 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IN**  
건강한 정부,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증기발견,  
자발치료 증인 민족군

# 모두, 안녕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풀선터 129 | | 고객센터 1577-1000 |